

새로 나온 책

▶미루의 마야문명 탐험(김미루 지음)=사진을 찍고 글을 쓰며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인 저자가 멕시코 유카탄반도 메리다에 정착해 써 내려간 기록이다. 벌레·모기떼 등과 싸우며 밀림을 헤치고 폐허의 피라미드를 찾아다니는 등 몸으로 부딪치며 견져올린 문장들이 펼쳐진다. 마야 땅에 살고 있는 한 외국인으로서, 마야문명의 정체성과 그 문화적 창조성에 대해 가급적 정밀하고 편견 없는 인식을 갖고 싶었다는 저자는 문명과 자연, 삶과 죽음, 기억과 망각을 더듬는 사유의 여정으로 독자들을 이끈다. 통나무.

▶정전(함윤이 지음)=제31회 문학동네소설상 수상작으로 작가의 첫 장편 소설이다. 노동과 사랑이라는 테마를 큰 축으로 스무살 인물의 성장 서사가 전개된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학업을 중단하고 제약 공장에 취업한 대학생 '막'. 생존의 현장에 뛰어들 '막'은 그곳에서 알게 된 '라히루'를 돕기 위해 소꿉친구 '은단'의 비밀스러운 능력을 이용해 공장의 전기를 끊을 계획을 세운다. 작가는 자본의 논리에 의해 부화뇌동 노동의 현장에서 기계적 시스템이 멈추는 순간 드러나는 인간적인 유대와 사랑의 가능성을 포착했다. 문학동네.

▶악의 이유를 찾는 사람들(나경희 지음)=경찰 사상 최초로 공개 채용된 특채 1기 프로파일러 4명의 범죄 수사 이야기. 현직 기자인 저자는 특채 1기 프로파일러 채용부터 수사 활동까지 20년의 기억을 온전히 풀어냈고 '한국형 범죄 분류 매뉴얼'(K-CCM)을 만든 과정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프로파일러의 시선과 고민을 통해 최초로 공개되는 범죄 사건들도 3건 이상이다.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연쇄 범죄가 사라졌어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프로파일러가 필요하다"며 "별도 들지 않고 CCTV도 비추지 않는 어둠 속에서 범죄를 쫓는 헌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다. 에스판다스.

▶나는 우도 주민이 되기로 했다(지혜찬 지음)='마을 여행공동체'를 만든 이방인의 고전 분투 정작기'라는 부제가 달렸다. 여행지에서 제주 우도 주민이 되어 살아온 시간을 일기처럼 기록했다. 이방인이기에 느끼는 괴리감과 고독, 그 속에서 마주한 삶의 단면이 담겼다. 도착민이든 바깥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그들을 향한 쓴소리도 숨기지 않았다. 협력과 연대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에게서 희망을 발견하고 섬의 미래가 있음을 믿는다고 했다. 맑은샘. 진선희기자

이 책!

제주어연구소 연구가 지

『제주어』 9호



“제주도 자생식물 특산 여부 재검토를”

현진오 소장 수록 논문서 제기 “제주백서향·제주사약채 사례 현대적 기법 재검토 필요 시사”

절종 가능성 큰 한라송이풀 등 멸종 위기종 보전 책임도 강조

제주고사리삼, 가시딸기, 갈기기름나무, 긴다람쥐꼬리, 바늘엉겅퀴, 섬쥐손이, 제주상사화, 탐라사철란, 탐라현호색, 한라개승마...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제주도 특산식물이다. 우리말 이름에 한라, 섬, 제주, 탐라 등이 붙은 것들이 많다.

제주 출신 현진오(주)동북야생물다양성연구소장이 제주도 특산식물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함께 자생식물에 대한 특산 여부 재검토를 주문했다.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의 연간 기관지 '제주어' 제9호(2026)에 실린 '제주도 특산식물 현황과 향후 과제'를 통해서다.

'제주어' 논문 편에 수록된 현진오 소장의 글은 지난해 8월 열린 제주어연구소 개소 아홉 돌 기념 초청 강연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고친 것이다. 현 소장은 이 글에서 지금까지 파악한 59종류의 제주도 특산식물 목록을 소개한 데 이어 제주 특산 여부 재검토가 필요한 제주 자생식물 19종류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제주백서향은 거제도, 가거도



등지에서 크는 백서향과는 다른 제주도 특산종으로 알려져 왔지만 최근 학자들이 중국과 대만에서 자라는 백서향의 변종으로 발표한 식물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진다. 제주도 특산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생식물로 밝혀진 경우다. 반면 제주사약채는 1912년 한라산에서 채집한 표본을 근거로 제주도 특산으로 봤지만 이후 학자들이 내륙과 외국에서 자라는 궁궁이와 같은 걸로 취급했다. 그러다 2024년 궁궁이와는 다른 제주도 특산식물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예전의 지위를 되찾았다. 이들 사례는 제주도 자생식물을 현대적인 분류학 연구 기법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현 소장은 환경부가 멸종 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해 보호하는 제주고사리삼, 한라송다리, 한라송이풀, 한라장구채 등을 꼽으며 제주도 특산식물에 대한 보전 책임도 강조했다. 그는 2019년 한라송이풀을 마지막으로 기록했

던 경험을 꺼낸 뒤 “그 이후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이미 절종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가야산, 설악산, 북부 지방에 나는 이삭송이풀과 같은 것이라 보는 학자들도 있는 만큼 후속 연구가 필요한 식물인데 절멸했다면 연구할 기회마저 함께 사라진 셈”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라장구채도 한라산 화구벽 일대에만 자라는 식물인데 분포 지역이 매우 좁고 개체 수도 많지 않아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로 진단했다.

한편 이번 '제주어' 9호에는 '방언형과 대응 표준어'(강영봉), '제주 민간에서의 사냥 관련 어휘와 문화'(김순자)도 논문 편에 게재됐다. '사진으로 읽는 제주·제주어'에는 이광진 사진가의 1970년대 '추자도 뿔뿔'과 '일주도로 길 내기' 등 두 컷의 추자도 사진을 소개했다. '제주어 이야기', '제주어를 만나다', '회보'도 만날 수 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운송업 남성들도 학교 설립 자금 보탬다



교육공헌기록사 자료집 발간 구좌 지역 사례 구술로 확인

“그때 하도리 사람들이 한 80~90톤 되는 화물선을 많이 운영했어요. 청진 가서 오징어를 운반했다는 거여.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학교에 많이 희사했던 말이야.”

1943년 사립하도학교 20회 졸업생 김석만 옹의 말이다. 그의 기억을 통해 당

시 하도리 사람들이 운송업으로 상당한 수입을 올렸고 이것이 학교 설립 자금으로 쓰인 걸 알 수 있다. 그 시기 하도 학교는 제주도에서 시설이 좋은 곳으로 유명했다. 그동안 물질 수입으로 학교 설립을 이끈 해녀들의 사례가 주로 알려졌다면 김 옹의 구술은 해안 마을 남성들의 기여도 역시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제주학연구소가 이런 내용을 담은 '근·현대 제주 교육 발전 공헌 기록사' I·II 권으로 '학교 설립과 공헌의 기록' 기초 조사 자료집과 '제주의 배움터를 일군 사람들' 구술 자료집을 나란히 내놨다. 1권에서는 문헌·공덕비·신문 기

사 등을 바탕으로 7개 읍면 96개교의 설립 연혁과 공헌자 명단을 정리했고 2권에선 2024년 기초 조사 성과를 토대로 6개 읍면을 찾아 공헌자 본인·후손·연고자 26명의 구술을 채록해 실었다.

자료집 발간은 제주인들이 광복 이후 학교 설립에 쏟았던 열정에 비해 학술적 조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판단 아래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취지로 이뤄졌다. 특히 재일제주인 1~2세대들이 대다수 고인이 되거나 고향에 접어들었고, 3~5세대는 일본 현지에서 성장해 고향과의 연결 고리가 희미해지고 있어서 공헌자에 대한 기록을 추적 조사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조사팀은 제주 학교를 세운 방식을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했다. 독자가 개인이 상당한 규모의 토지나 현금을 기부한 경우, 일본에서 성공한 재일제주인들이 고향의 학교 발전을 위해 개인 기부는 물론 동향인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벌인 경우, 마을 공동 재산을 내놓는 등 주민들이 공동 기부한 경우가 그것이다.

해녀들이 '학교 바당' 전통을 통해 십시일반 설립 비용을 모으거나 마을 주민들이 등짐으로 돌을 나르고 학교 울타리를 만들며 미래 세대 교육에 힘을 더한 사례는 구술 채록에서 또 한 번 확인됐다. 화물선 운송업 등을 하는 남성들이 학교 설립 자금을 보탬다는 건 이번엔 새롭게 드러났다. 비매품. 제주학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전자 파일로 열람할 수 있다. 진선희기자

축선
CONGRATULATIONS
사)제주특별자치도어선추협의회
제13대 회장

홍석희
사)제주특별자치도어선추협의회
제13대 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행정동우회
회장 강태석 외 회원 일동

왕방울 은행나무
성목 판매 (200본)

- 공원 조성용(열매 냄새 없음)
- 수령(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음)
- 재래종 보다 열매는 2배 큼
- 개량종(부채꼴, 대접꼴, 밥통꼴)

문의 : 010-4693-1698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 세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열독률·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 부터 17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6마리' 품질인증 01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30·구독 750-2330·서귀지사 732-5552